

이태준 장편 소설에 나타난 모성의 의미 고찰

김 주 리*

1. 머리말
2. 처녀성과 모성의 역설적 병치
3. 남성의 축출과 미혼모 가정의 탄생
4. 자매애적 세계의 지향과 자궁선망의 서사
5. 결론

* 서울대 국문과 강사

국문초록

본고는 이태준 장편 소설 가운데 〈성모〉와 〈딸 삼형제〉 등 모성 서사를 중심으로 이태준이 구현하는 모성이 어떤 의미와 가치, 한계를 가지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관념적 아버지의 추구라는 점에서 이태준의 창작 의식을 논의해온 기존의 연구사와 달리 본고에서는 이태준이 고아로서 상상적인 어머니를 추구하는 것 역시 그의 창작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태준은 가부장제 하에서 일반적 남성이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환상, 즉 완벽한 어머니의 환상을 공유하는 동시에 고아로서 상상적인 어머니를 일반적인 근대 가정의 모성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하기도 한다. 이태준의 모성 서사에서는 처녀로서 임신하기의 역설 속에서 어머니의 섹슈얼리티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거세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임신한 처녀라는 어머니의 모습은 남편 또는 아버지가 축출되어 이루어지는 미혼모-사생아의 공적 가정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미혼모-사생아의 가정은 소위 정상적 핵가족의 질서와 달리, 그 어머니의 여자 형제 또는 외할머니와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매애적 질서 속에서 아들(작가)에게 유년의 풍족함의 형태를 환기시킨다. (이것이 이태준의 창작 의식을 자궁선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머니-외할머니로 이루어진 유년의 풍족함의 기억이 이태준의 상상적 어머니 찾기의 기원에 가로놓여 있다고 할 때, 이태준의 모성 서사는 식민지 시대 일반적 남성 작가의 여성 서사와 변별되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모성 서사, 임신한 처녀의 역설, 공적 가정, 자매애적 연대, 자궁선망

1. 머리말

1904년에 태어나 1925년 <오몽녀>를 시대일보에 발표함으로써 등단한 이태준에 대해서는 식민지 시대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라는 평가¹⁾가 내려지며 그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그 자신 '신문소설'이라고 평가절하한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통속성과 계몽성, 여성성장소설로서의 의미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²⁾ 이 가운데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을 관련지어 이태준 소설 전반을 일관된 흐름으로 읽어내려는 연구들도 나타나는데, 장편소설의 세계를 사회적 근대성, 단편소설의 세계를 미적 근대성으로 규정하는가 하면³⁾ 미적 근대성의 개념을 장편소설에까지 확대시켜 고찰하기도 한다.⁴⁾ 이런 일련의 연구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태준의 작품세계를 관류하는 정신 구조를 '고아의식'으로 규정하며 이태준이 추구한 아버지의 세계, 즉 '개화당으로서의 아버지'와 '선비로서의 아버지' 지향이 가진 의미가 어떻게 서사화되는지를 고찰한다는 점이다.⁵⁾ 이때 이태준의 고아 의식 또는 서자의식은 국권상실과 부권 상

1)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 정한숙, 『한국현대문학사』(고려대출판부, 1982) 등

2) 대표적으로 안남연, 『이태준 장편소설연구』(도서출판 대영현대문화사, 1993) / 채호석, 「이태준 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미」, 상허학회 편, 『이태준 문학연구』(깊은샘, 1993) / 장영우, 『이태준 소설 연구』(태학사, 1996) / 김은정,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육망의 서사적 구성화를 중심으로』(서강대 박사, 2001) / 채호석, 「통속과 계몽 그리고 (제국)의 논리」,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깊은샘, 2004) 등

3) 서영채, 「두개의 근대성과 처사의식」, 상허학회 편, 『이태준 문학연구』(깊은샘, 1993) /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소명출판, 1999) 등이 대표적이다.

4) 송인화, 『이태준 문학의 근대성』(국학자료원, 2003) / 박진숙, 「이태준 문학연구-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 2003) 등이 대표적이다.

5) 박헌호, 송인화 등의 연구에서 이태준의 관념적 아버지 지향성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실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속물적인 근대를 비판하고 예술적 순수를 지향하게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태준의 고아의식을 단지 아버지의 상실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고아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상실한 존재이기에, 고아로서 상상적 아버지, 관념의 아버지를 서사화하는 만큼이나 어머니의 환상을 추구하는 것 역시 이태준의 소설을 관류하는 주된 의식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는 자전적 장편인 〈사상의 월야〉나 수필 〈고아의 추억〉 등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부재라는 사실에서 오는 고통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그에게 고아로서의 서러움은 '내게는 왜 어머니가 없나'라는 진술로 집약된다.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양육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 이태준의 의식세계 한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의 부재는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여서 오히려 문제적인 상황으로 제시되지 못하며 한갓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의 세계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서사를 통해 구현되는 아버지 찾기와 어머니 찾기가 가진 차이점은 이태준이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아들의 삶은 아버지를 모방하며 어머니와의 친연성으로부터 이탈을 통해 어른이 되는 까닭에 아들에 의해 씌어진 어머니 서사와 아들에 의해 씌어진 아버지 서사가 그 형식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근대적 모성이란 아들에 의해 씌어진 어머니의 서사, 즉 어머니를 가정의 천사, 절대적 애정을 가진 존재로 이상시하고 그 이상에 근접한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구축하거나 그 이상에서 이탈한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것이 되고 있다.⁶⁾ 즉 근대

6) 완벽한 어머니의 환상은 근대 이후 어머니가 양육의 중심으로 부각된 이래 남성담론, 여성담론 구분할 것 없이 주요한 논의로 부각되어 왔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이 자녀의 정상성을 결정짓는다는 논의 속에서 어머니의 완벽한 어머니일 수행(mothering)을 강조하며 이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낸시 초도로우, 「완벽한 어머니의 환상」, 베리 쇼운 편,

적 모성의 환상은 대부분 아버지의 질서를 계승한 정상적 핵가족의 아들에 의해 씌어진 어머니 서사이며, 그 속에서 여성은 사적 공간인 가정에 한정되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헌신적인 모성애를 발휘하는 존재로서 규정된다. 어머니일 수행(mothering) 역시 자본제적 생산이 요구하는 신체의 훈육적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녀 양육 과정에 근대 의학과 통제적인 양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이다.⁷⁾ 문제는 이러한 모성을 실제로 구사하고 있는 여성은 소설 속에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으며, 말 그대로 아들에 의해 씌어진 어머니 서사란 식민지 시대 작품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신적인 구시대적 어머니의 모습으로만 현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대 남성 서사의 경우 대부분 신여성과의 연애를 중심으로 여성의 타락을 경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신여성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도 그것은 현모(賢母)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양처(良妻)로 나타나고 있다.⁸⁾

이런 점에서 이태준의 장편 소설 <성모>와 <딸 삼형제>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 크다. <성모>는 이태준이 “한 훌륭한 어머니, 그의 사랑이면 그의 지혜이면 그의 의지이면 모든 것을 믿고 오직 머리 숙이고 심혼 거룩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은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끈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 마음이 진작부터 간절한 바 잊섯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의 훌륭한 어머니’를 생각해 보려합니다. 다…….”⁹⁾라는 의지를 천명할 정도로 ‘오늘의 훌륭한 어머니’의 환상, 완벽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한울아카데미, 1991) 참조.

7) 이에 대해서는 새리 엘 서러, 『어머니의 신화』, 박미경 역(까치, 1995)와 조은 외, 『근대 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서울대출판부, 1996) 참고.

8) 이에 대해서는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양상 연구」(서울대 박사, 2003) / 노지승, 「한국 근대 소설의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 2005) 참고.

9) 이태준, 「신문소설계의 경이적 거편 신연재장편소설 성모-작가의 말」, 『조선중앙일보』(1935.5.22).

한 어머니의 환상을 소설화한 것이며, <딸 삼형제> 역시 여자는 어떻게 어머니로 태어나는가를 소설화하고 있기에 이 두 작품에서 모성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남성적 시선에 의해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의미를 넘어 아들의 시선에 의해 모성은 어떻게 재정의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¹⁰⁾ 이 때 이태준의 개인사, 즉 고아로서 상실된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성취하는 과정 또한 문제시해야 한다. 이태준의 경우 9세에 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이상적 모성에 대한 요구를 낳는 동시에 특징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¹¹⁾ 아들에 의해 씌어지는 어머니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사적 가정의 천사로서의 모성 현현과 달리, 고아이기에 이태준이 특징적으로 구현하게 되는 모성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에만 이태준의 소설에 대한 적절한 여성주의적 비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바이다.

10) 이호숙은 이태준의 정편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이 계몽적 지식인으로서의 남성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바라보는데(이호숙, 「식민지시대 남성작가의 욕망과 여성주인공」,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깊은샘, 2004)), 본고에서는 모성 서사와 관련하여 작가의 모습이 주인공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이 낳는 아들의 시선에 투영되는 것으로 본다.

11) 이태준의 여성 재현에 대해 그 민족적 속성을 들어 긍정하는 경우(이명희,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장편 <성모> 연구」, 『상허 이태준 문학 세계』(국학자료원, 1994) / 송인숙, 앞의 책), 그 모성술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긍정하는 경우(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소명출판, 2002))와 그 가부장적 의식을 들어 부정하는 경우(이정옥, 「'성모', 끝없이 이어지는 신화의 재생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모성성』(태학사, 1998))가 나뉘는 것은 일반적 남성 서사와 이태준만의 고아의식의 중첩에서 어느 쪽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닌가 한다. 본고는 이태준의 남성으로서의 입장과 고아로서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모성 서사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처녀성과 모성의 역설적 병치

남성에 의해 씌어지는 여성의 서사와 아들에 의해 씌어지는 어머니의 서사를 변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여성에게 섹슈얼리티와 모성이라는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섹스와 모성은 여신 종교가 소멸된 이래, 즉 남성이 여성들을 모든 영역에서 성모 마리아 아니면 매춘부로 찢어놓기 시작했을 때부터 융화되지 못해왔다.¹²⁾ 남성에 의해 씌어지는 여성의 서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진 위험성을 추적하고 여성의 몸을 가정 내의 재생산과 관련하여서만 인정하는 가운데 섹슈얼리티를 재배치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모성의 자격은 오로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권력화하지 않는 여성에 한해서만 주어지며, 그렇지 않은 여성의 경우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철저히 유린되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성기의 죄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간통한 어머니와 그 죄의 증거로 태어나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죽음이나 불구로 처벌하는 이광수의 <재생>이나 <흙>과 같은 작품들에서 잘 나타난다.¹³⁾ 반면 아들에 의해 씌어지는 어머니의 서사에서는 처음부터 여성의 몸에 섹슈얼리티가 거세되어 있다. 여성은 처녀인 채 잉태하여 어머니가 되며 이를 통해 성모의 환상이 전체 서사를 필연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 삼각관계의 미약성으로 평가되어온 장편 <성모>의 전반부는 처녀성과 모성의 결합이라는 역설을 통해 후반부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어지는 것이다.¹⁴⁾

12) 세리 엘 서러, 앞의 책, p.19.

13) 이에 대해서는 줄고,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체담론 연구」(서울대 박사, 2005) 참고.

14) 박현호가 <성모>에서 삼각관계의 긴장성 상실이 작품의 계몽적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보는 반면 이명희는 전반부의 삼각관계를 통속성을 위한 장치로 간주한다. <성모>의 전반부는 여주인공의 이상적 미모의 제시로만 의미가 규정되어 그 가치가

〈성모〉의 전반부는 여주인공 안순모, 후에 위대하고 완벽한 어머니가 될 존재의 처녀성을 보여주는 데 바쳐진다.

「성문제가 뭐야?」

순모의 기억에는 ‘성’이라면 아직 김가니 이가니 하는 성명의 성(姓)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성문제가 뭐냐구? 짓두 모르니 정말?」

「으응……」 하고 순모는 베개 위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나이 겨우 열일곱을 지났고 그나마 소박한 가정과 교회학교에서 길러 온 순모는 아직 성에 대해서 감정으로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도 백지 그대로였다. 그랬기 때문에 도리어 덕인이 편이 얼굴을 약간 붉히고 덤빌 뿐, 순모는 정정당당한 것을 선생에게 질문할 때처럼 필요 이상의 긴장은 마음에서 먹지 않았다.¹⁵⁾

하숙집 주인 딸 덕인과 산아제한 문제를 논의하는 순모는 천진하다 못해 백치 같은 모습으로 ‘성문제’에 대해 질문한다. 성문제에 대한 그녀의 백치성은 ‘밤에 남자하구 마주 앉으면’ 아기를 가지는데, 어떻게 여학생들이 밤차로 남자와 마주 앉으며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할 정도에까지 이른다. 성에 대한 지식 감정의 백지상대는 곧바로 성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으로 이어지며 그녀의 성격적 결벽을 형성하게 된다. 덕인에 의해 단지 밤에 남자와 ‘마주 앉는다구 아일 배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임신되는 경로를 설명해’ 들었을 때 순모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느끼며, 남녀간의 성행위를 임신과 무관한 것으로 돌리면서 연애와 결혼을 모두 거부하게 된다.

축소되어왔다. 하지만 〈성모〉 전반부의 서사는 여주인공의 이상적 미모를 중심에 놓는 서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녀의 처녀성의 상태, 순진성의 상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 이태준, 『성모』, 이태준 전집 7(깊은샘, 1888), p.17.

「그렇게 야수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엔 악한 사람이 더 많은가 보다!…… 나두 우리 부모가 …… 아이!」(중략)

「그럼 연애라는 것두 결국 그런 불유쾌한 생활의 순서로 들어가는 서곡이 아닌가?」고도 생각해 보았다. 그때 조선은 기미년 직후라 모-든 가치관념이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검토되던 한참이었다. 젊은이들 사이엔 연애 없이 하는 결혼은 매음이니, 연애는 자유로워야 하고 신성해야 하느니 하는 주장이 한 개 새로운 사조였었다. 이 엄연한 사조 속에서도 그 '야수적인 일면'이란 것은 순모로 하여 연애에 명량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¹⁶⁾

남녀간의 성관계를 둘러싼 여주인공의 무지는 결국 연애와 결혼의 야수적인 일면으로 성행위를 확정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런 야수적인 일면을 생활해야 하'는 연애와 결혼에서 벗어나 '일평생을 처녀대로 늙어버리는 이들의 순결함'에 대한 흥모를 품는다. 성행위의 야수성과 불결성에서 벗어나 처녀의 순결성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근본 명제가 된다. 이에 따라 그녀의 임신은 단순한 연애와 결혼의 구도를 따르는 행위가 되지 못한다. 연애와 결혼을 불결시하고 그 속에 성행위의 야수성이 잠재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런 불결성과 야수성을 돌파하는 임신과 출산이란 근원적으로 미혼모되기, 처녀인 상태로 임신하기의 역설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야수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간이 나올까'라는 그녀의 내면 갈등은 그 야수적인 행위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거세하며 성행위가 아니라 예술행위에 의해 임신한다는 새로운 구도를 보여준다. 그녀가 연애의 대상인 상철이 아니라 자신의 나체를 그린 화가 정현과 관계하여 임신하는 것은 이러한 구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상철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남성으로 접근하는데 이러한 상철의 남성성

16) 위의 책, pp.20~21.

을 거세하기 위해 순모는 의붓오라비라는 조건을 내건다.¹⁷⁾ 하지만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상철은 “그 커다란 손이 징그럽게 생각이 되고, 그의 뺨, 그의 입술이 또 그렇게 생각됨을 순모는 아직은 어쩔 수가 없었다.”¹⁸⁾ 연애의 대상으로 현현하는 상철은 야수적인 일면을 노출하여 그의 신체는 평생 순모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반면 정현은 화가로서 예술가적 시선에 의해 순모의 나체에 접근하기에 임신이 가능해진다. 그는 순모가 꿈꾸는 ‘냉수 같은 남자’, ‘후끈후끈하고 끈적끈적스럽게 자꾸 덤비지 않고 빙산처럼 초연히 앉아 늘 높은 사상을 생각하고 늘 먼-시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의 이상에 접근한다. 순모는 자신의 나체를 바라보는 정현의 예술가적 시선에 그런 ‘냉수같은 남자’의 이상을 동일시하기에 그에 의해 이루어지는 야수적 행위, 성행위는 창조적 예술의 논리로 재편되는 것이다.

박선생님께서 그간 계획을 고치시지만 않으셨다면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마다 가서 모델이 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선생님의 인격과 예술을 존경하는 바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관계없습니다. 나체로 그리시고 싶으면 나체라도 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호기심을 위해 옷을 벗는 것이라면 불순한 일이겠지만 선생님의 예술을 위해 선생님의 화필 앞에 모델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훌륭한 작품을 내이시는데 제가 그 재료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¹⁹⁾

순모는 상철과 덕인의 성관계를 목격하고 분노한 나머지 정현과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그 이전에 순모가 정현 앞에서 나체 모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맺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정현

17) 의붓남매 결연과 연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경훈, 『오빠의 탄생』(문학과학지성사, 2003) 참고.

18) 이태준, 『성모』, p.51.

19) 위의 책, pp.121~122.

의 예술적 시선에 의해 순모의 육체가 이미 점령된 까닭에 상철은 순모의 처녀성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순모의 처녀로서의 임신, 처녀로서 어머니 되기의 기획이란 정현이라는 예술가의 시선이 순모의 나체를 스쳐가는 순간 이루어진다. 순모는 정현이라는 남성의 성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나체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잉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들에 의해 씌어지는 어머니의 서사는 처녀로서의 임신이라는 역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나체로 정현의 모델이 되는 순모의 모습은 그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찬양되며 자세히 묘사되는 반면 분노의 하룻밤 정현과 순모 사이에 맺어지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녀간 성행위에 대한 무지와 이로 인한 처녀성의 고착은 이태준의 모성 서사에 공통적인 것으로 이는 <딸 삼형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딸 삼형제>의 주인공 정매는 ‘길바닥에 밟히도록 천하게 많은 남학생들’과 달리 그 어머니가 염불처럼 하는 “집안을 아름답게 하고 집안의 모든 걱정을 몰아내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평화와 아름다움을 주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무슨 훌륭한 장사나, 임금님이나, 신선 같이도 믿어”지는 ‘아들’로서의 남편을 꿈꾸며 명문대가에 시집을 가지만, 그 ‘아들’로서의 남편이 “결코 눈꼽만치나 장사 같지도 않았고, 눈꼽만치나 임금님 같은 데도 없고, 눈꼽만치나 신선같은 데도 없”이 “그저 길 우에 그 흔한 남학생 하나를 다려다 교복을 벗기고 비단으로 바지, 저고리를 입혀 놓은데 지나지 않”음을 알고 실망한 데다가 “그런 평범한 남학생의 하나인 신랑은 자기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다만 그것이 가장 천한 동물적인 행동이란 것밖에는 짐작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자기의 유리알 같은 몸을 습격하는 데”²⁰⁾ 진저리를 내다 어느 날 남편이 계집종과 그런 야수의 행동을

20) 이태준, 『딸 삼형제』, 이태준 문학전집 12(서음출판사, 1988), pp.17~18.

하는 것을 보고는 시댁을 뛰쳐나오게 된다. 신화의 세계, 장사와 임금님의 세계를 꿈꾸던 그녀가 직면한 것은 성욕을 가진 평범한 남학생의 세계라는 데에서 그녀의 처녀성 고착은 출발한다. 야수적인 행위를 일삼는 결혼으로부터 그녀는 자신의 처녀성을 끝까지 지키는데 이 처녀성은 따라서 이후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명제가 된다.

“어째요? 임신요?”

정매는 거이 비명과 함께 발작적으로 옆에 놓인 화채그릇을 밀쳐버리었다. 붉은 화채물은 의사의 흰 양복에 함부로 업질러졌다. (중략) 정매는 분이 터질 것처럼 전신이 팽팽하게 올랐다.

‘날더러 아이 가졌대구! 시집만 가면 다 아이 배나? 내가 처녀 줄 의사녀석 이 몰라서? 남 처녀더러 아이 가졌대?’ 정매는 엉엉 소리를 질러가며 울었다.21)

정매는 시집간 여성이지만 동시에 처녀성을 고수하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처녀로 규정하고자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녀 신체의 처녀성 여부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오직 시집간 여성으로서의 전력, 쪽진 머리와 긴치마에만 돌려진다. 그렇기에 그녀를 진찰한 의사는 그녀의 신경증을 임신의 탓으로 돌리고 입학하려는 학교에서는 그녀의 결혼 사실을 들어 거절한다. 그녀는 의사에게 처녀성 검사까지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지만 학교에서는 공리성을 들어 그녀의 입학을 거절하고 공부를 통해 새로운 생을 꾸리려 한 그녀의 계획은 좌절된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두 동생의 보호자 노릇, 즉 상징적인 어머니의 위치일 뿐이다. 〈성모〉가 처녀로서 임신하는 여성의 신체라는 역설을 보여준다면 〈딸 삼형제〉는 결혼한 여자이지만 처녀인 여성의 역설 속에서 독특한 모성의 자질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21) 위의 책, p.51.

3. 남성의 축출과 미혼모 가정의 탄생

이태준의 모성 서사의 특징은 어머니가 되는 여성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거부하고 남성(남편)을 가정에서 축출하여 미혼모-사생아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다. 그들은 미혼모가 됨으로써 스스로 안정적인 부르주아 가정의 형식, 문화주택과 스위트홈에 편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식민지 시대 남성 서사가 여성의 양처상을 정립하는 데 바쳐지는 가운데 사적 영역의 천사로써 여성을 표상하는 반면 이태준의 모성 서사에서 여성들은 가난한 예술가 또는 학자의 반려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양처의 상태를 지속하지 않으며 임신 이전에 대부분의 경우 양처로서의 모습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의사란 왜 마음의 병은 드러다볼 줄 모르나? 내가 말을 안해도 그이가 청진기를 통해 내 사정을 죄다 들을 수가 있다면? 그럼 그인 으레 날 동정해 줄 게다! 옛날처럼 그렇게 일른 조혼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자신이 결혼이란걸 충분히 모르고 부모에게 끌려간거니 이런 파탄이 나는 것도 정한 이치라고 우리 부모님이 알아드르시고 날 용서해주실 정도로 그이는 넉넉히 변명해줄 수도 있을 게다! (중략) 그이도 그럴가? 남자라구 뭐 다 마찬가지로? 그인 그래 두 안 그럴거야…… 내가 시집을 다라나온게 신랑의 그런꼴을 봤기 때문이라면 그인 담박 내편이 돼 시집사람 몇백명이 오더라도 대꾸 한마디 못하게 모라셀거야…… 그런 오라버니가 계셨으면!’²²⁾

〈딸 삼형제〉에서 정매의 연애의 출발점은 자신의 처녀성을 한눈에 알고 자신의 처지를 동정해줄 수 있는 존재, 남편과 달리 자신에게 육체를 요구하지 않는 존재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차의사를 상대로 남편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나체를 드러내며 그가 청진기를 통해 자신의 처녀성을 가시화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연애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그녀의 연애는 안전한 부

22) 위의 책, p.41.

르주아 가정의 성립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으며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에 의해 용인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그녀가 요구하고 가질 수 있는 가정은 문화주택과 스위트홈의 상상을 결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즉 그녀의 가정은 하나의 공적(公的) 사업과 같은 공간, 그녀 자신이 사랑을 포기하고 두 누이동생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생을 전탁할 수 있는 하나의 사명과 같은 공간으로 자리매김된다. 정매가 추구하는 연애는 어디까지나 사명감에 불타는 사업욕의 형태를 띠며 단지 가정의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돈을 벌며 가난한 학자 혹은 의술을 펼치는 오라비를 보조하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녀는 첫 번째 연애의 대상이었던 차의사가 자신의 육체적 순결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서 단지 재산과 향락만을 찾게 되자 스스로 그 연애에서 물러나 새로운 대상을 찾는다.

정매가 발견한 두 번째 연애의 대상은 고학생 출신이며 가난한 학자인 남필조로 그는 정매의 법률적으로 두 번째 남편이며 육체를 거쳐간 유일한 남성이 된다. 그는 첫 번째 남편이나 차의사와 달리 정매가 요구하는 정결성이 기준, “육신으로 깨끗허길 여자만 그러래는 것두 아니다. 남자두 똑같이 그래야지 뭐 여자만 그걸 지키구 남잔 아무래두 괴찮단 그런건 아니다”²³⁾라는 몽상에 부합하는 존재이다. 즉 그는 정매의 육신과 정신적 정결의 몽상에 부합하는 외모와 태도를 가졌기에 정매는 필조에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채 결혼생활에 돌입한다. 그런데 그는 정매의 누이동생 정국이가 간파하는 것처럼 ‘똑 수신선생님 같은 사람’으로 “학교만이라도 선생이 깡그리 수신 선생뿐이래 보, 얼마나 인간미가 없겠나? 그런데 항차 세상 인류가 모주리 수신선생감만? 아유! 거 사람이 하루라두 군색해 어

23) 위의 책, p.258.

떻게 산담!”²⁴⁾ 하는 불안이 맞아떨어지리만치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즉 그는 정매의 정결성의 환상의 대상이지만 그 환상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근색함과 비인간미를 그대로 발휘해 정매의 삶을 구속하는 도덕명령으로 전면에서 배치되는 것이다. 정매가 생계의 책임을 지고 남편의 공부를 보조하다 그만 첫남편의 계략에 넘어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날 이후 그는 그 사정의 여하는 묻지 않고 ‘수신선생깁’의 도덕주의를 내세워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다.

“따질 아무것도 없는 거요. 부정한 계집은 부정한 계집으루 밧을 길이 있는 거요. 비겁하게 왜 따라 땡기며 성화야, 아일 못내놔?” 하며 필조는 정매의 팔을 낚우어챤다. 정매는 아이를 떨구지 않으려 안은 채 풀썩 주저앉는다.

“이자식아!”

소리가 났다. 정국이다. 어느 틈에 필조의 넥타이를 움켜 잡고 필조의 뺨을 철썩 올려쳤다.

“너 우리 언니 남편 노릇한게 뭐냐? 안해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한마디 반마디 무러보구나 땡비니? 남편 권리만 주장할 줄 알구 의무는 어째 모르니? 나하구 좀 따지자.”²⁵⁾

필조는 정매에게 보낸 첫남편 김오련의 지폐를 보고는 바로 그녀의 부도덕을 추론하고 부도덕한 어미의 업을 물리지 않기 위해 그녀와 이혼하고 아이와 그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사정 볼 거 다보군 세상에 정조가 없는 거요. 정조란 결과를 가르키는 거요.”라는 자세만이 지배하기에 그에게는 일단 몸을 더럽힌 아내란 절대적으로 부도덕한 존재가 될 뿐이다. 이러한 도덕명령으로서의 남편이란 가부장으로서 사적 공간의 아내 역할만을 여성에게 구속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도덕명령을 내세우는 남

24) 위의 책, p.259.

25) 위의 책, p.335.

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남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모순이다. 사업의 동반자로서 남편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적 공간의 순결한 아내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남편은 가정에서 축출되며 모-자 관계 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 공적(公的) 가정이 탄생한다. 이는 의도적인 남편 축출을 통한 미혼모 가정의 탄생을 알린다. 정매는 이후 정국과 함께 '자매 악기점'을 내며 아들 도운을 키우면서 "너이 아버지인 멀-리 유학하셨단다, 평생 안오는……"26)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의도적인 미혼모의 삶으로 조직한다. 그녀는 남편 필조가 다시 결합하기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들과의 삶만을 주장한다. 평생 오지 않는 남편, 평생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조건 속에서 미혼모-사생아 가정은 하나의 사업장과 같은 공간으로 조직되는데, 이것이 이태준의 모성서사를 특징 짓고 있는 것이다.

〈성모〉에서도 가난한 예술가로서 안순모의 나체를 점령한 박정현이 그 가난한 예술가의 위치를 버리고 스위트홈의 남편 역할로 변화할 때 그 역시 가정에서 축출된다. 가난한 예술가의 자리에서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으로 변화됨으로써 그는 안순모가 구축하는 새로운 가정에서 축출되는데 그 축출의 모습은 부잣집 딸과의 동경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가 축출되는 순간 순모에게는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며 남편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의 대상, 즉 공적 가정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존재로서 아들이 탄생하게 된다. 남편(남성)이 도덕명령에 의해 아내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반면 아들은 이러한 남편의 구속력과 다른 자기애의 측면을 나타낸다. 즉 아들은 수신선생 같은 남편과 달리 어머니의 이력과 욕망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함께 사업장으로서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대상으로, 어머니의 신체와 정신의 연장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26) 위의 책, p.355.

‘더러운 어미라고 안보나?’

그러나 도윤이만은 어미의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 같다. 세상이 자기에게 침을 배알어도 도윤이만은 자기를 애껴 주리라 믿어진다. 남편까지라도 남이 돼도 좋다. 도윤이만은 자기의 편이 되어줄 것 같다. 파악 끌어안어 본다. 팔이 뚱뚱하고 손바닥이 폭신하고 가슴에서 째액째액하면서 꿀꺽꿀꺽 젖을 빠는 것이, 도윤이와 자기는 합해해야만 온전한 한 생명같이 느껴진다. 죽어도 가치 죽고 살어도 가치 살아야만 할 것 같다.²⁷⁾

〈딸 삼형제〉에서 아들 도윤은 정매에게 남편까지 남이 되어도 끝까지 자기의 편이 될 수 있는 존재, 삶의 온전한 합일체로서 남게 된다. 둘이 합쳐져야만 온전한 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아들을 규정함으로써, 그녀는 자기 생애의 전 가치를 아들의 양육에 투여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절대적 이해의 대상, 자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아들에 대한 사랑. 자기애의 연장선상에 모성애가 존재하게 될 때 그 모성애는 자기희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자매애적 세계의 지향과 자궁선망의 서사

아들의 어머니 서사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어쨌든 난감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정결한 어머니가 야수적인 성행위가 가능한 육체,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태준의 모성 서사에 나타나는 아버지 축출은 어머니에 대한 욕망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전형적인 외디푸스 서사를 일정하게 변형하는

27) 위의 책, p.306.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아버지의 존재 부재를 통해 형성되는 가정이 아들의 애육이 아니라 어머니의 헌신의 드라마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사랑에는 어떤 형태로든 섹슈얼리티는 완전히 거세되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생을 투여해 긍정적 가치를 낳는다는 공적 가정의 모습을 띠고 현현한다. 미혼모 어머니에게 자식은 사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공적인 사업, 생산과 창조의 의미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태준이 제시하는 올바른 가정의 모습은 결국 ‘경제관념’에 입각해 있다. 이는 <딸 삼형제>에서 정매-정국 자매가 구축하는 모-자 가정상을 통해서 제시된다.

“사람에게 있는 정열을 충분히 발휘하기 전에 이내 결혼을 시켜버려서 정열을 그냥 썩히거나 그냥 썩히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생활을 깨트리구 똥 나와서 벨벨 비극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는 그런 연연 인생을 쓸데없이 소모시키는거 아냐?”

“그럼 연애시길 오래 가지란 말이지?”

“그렇다구 할 수 있지.”

“전 도리혀 인생의 낭비 아니냐? 사람이 연애만 허러 생겼니?” 하고 정매는 웃는다.

“참 딱하네 큰언니! 누가 연애만 한대우? 무슨 일이든지 연애하는 사람처럼 잘하라구 그류. 사람이 감정이나 힘이나 정신력을 최고로 동원시키는 게 연애 만한게 어딴구? 빼-토벤 보? 그 에리사에게 품은 열정이 좀 여러 작품 속에 꿈들거류? 판테-가 빼아토리체가 없었대 보? 또 빼-토벤이 에리사하구, 판테-가 빼아토리체하구 한뉘달 연애하다가 이내 결혼했다 쳐 보? 아이나 들끓구 가정 현실에 억맷대 보? 어디서 그런 정열들이나 공상력들이나 낭만들이 흘러나왔겠수?”²⁸⁾

28) 위의 책, pp.270~271.

정매와 정국, 정란 세 자매의 결혼과 연애 대담은 인생 자체의 경제와 불경제의 관념을 내포한다. 인생 자체를 경제롭게,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 그런 정열의 현현으로서만 연애와 결혼이 긍정된다. 즉 연애나 결혼은 모두 한 대상에 대한 절대적 감정 투여를 통해 정신을 고양시키고 예술적인 생산품을 **산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일 때에만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생산성, 창조성의 공리 속에서 어머니 되기(mothering) 역시 긍정될 수 있다. 이태준에게 있어 모성이란 일종의 창조성을 갖는 것으로, 인생 자체를 투여하여 하나의 예술품을 창조하는 행위와 대응한다. 딸이 아버지의 권력을 **욕망하는** 것이 남근선망의 정체를 이루는 반면 아들이 어머니의 생산력, 창조성을 **욕망하는** 것을 자궁선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²⁹⁾ 이태준의 모성 서사는 어느 정도 자궁선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³⁰⁾

〈성모〉 후반부에서 안순모의 모습은 민족적 모성, **양육자**를 넘어선 지도자-어머니의 형태를 띠고 절대시된다.

「아이는 별수없이 사생아가 된다. 사생아를 가진 내 치신을 사회는 달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생 그늘속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 아이의 노예가 되어야겠으니까 딱하지 않으나?」

「사회가 용납지 않는다? 아이의 노예가 되기 싫다? 그건 벌써 산 사람의 말이 아니다. 정말 사회에 나서 일하려는 정열에 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29) 가야트리 스피박은 프로이트나 맑스가 생산지로서 자궁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의식이론의 생산에 자궁선망의 편력을 그려넣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사회의 생산을 결정하는 음경선망 개념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것으로서 자궁선망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가야트리 스피박, 『페미니즘과 비평이론』, 『다른 세상에서』, 태해숙 역(도서출판 여이연, 2003), pp.170~172).

30) 타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어머니의 사고라는 사라 루딕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태준의 자궁선망이 창조력으로서의 어머니의 자질을 향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이태준 소설에서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과 같은 감정구조를 형상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볼 수도 있겠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면 혼자 왜 일하지 못하는가? 좋은일을 혼자 수긋하게 하는데 누가 와 휘방을 논단 말이나? 또 자식 기르는 것을 노예의 노동으로 보는 것은 망녕된 인식이다. 너는 네 부모를 네 노예로 아느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백년지계는 종어인이란 말을 듣고도 그러느냐? 오늘 조선사람들처럼 인물이 없어 찢찢매는 무리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인물이 목전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절망하고 마는 것이 옳으나 백년 뒷일이라고,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우리의 큰 희망을 버려야 옳으냐? 남편에게 책임이 없이 여러아이도 아니요 다만 하나를 위해 온 정성과 온 힘을 다 바쳐 네 이상하는 인물을 길러 내기 위해선 너는 노리어 얼마나 좋은 기회냐?,³¹⁾

안순모에게 자녀 양육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그녀는 가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 사업을 스스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청춘무성>에서 여급 출신으로 미혼모-사생아의 구제라는 사회사업에 헌신하는 최득주의 사업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하나의 사업처럼 공적으로 조직되는 가정을 그리기에 순모는 이후 상철이 사생아까지 받아들여 이겠다고 요구하는 결혼까지 거부한다. 안순모의 모성술은 태교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양육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교육적 장, 계몽 사업을 연상시킨다. 위대한 모성이 되기 위해 스위트홈을 거부하는 데에서 아들에 의해 씌어지는 어머니의 서사는 완결된다. 아버지가 축출된 가정이란 아들이 어머니의 애정을 전유하는 형태로, 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섹슈얼리티가 개입할 그 어떤 여지도 없어진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은 성적인 불모성을 나타내며 정신적인 자기에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럼 너 오늘 여기서 나하고 다짐하자.」

「무슨 다짐?」

「너 그 야심을 성취할 때까지는 동지로서는 이성과 가릴 필요가 없겠지만 연애만은 하지 않기로 맹세해다구?」(중략)

31) 이태준, 『성모』, p.249.

「그렇게 마음이나 정이나 한두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을 것, 그걸 결심 못하겠나? 억지루 네 기억 속에서 옥경이나 이 어밀 당장에 몰아내라는 건 아니야. 더 아쉽게 그리워한다거나 생각은 말란 말이야…… 옥경이가 오드라두 그냥 동무루 놀구 그 사람 감정에 대해서 아모런 책임은지지 말란 말이야 알아?」³²⁾

순모는 공적 사업으로 조직된 가정의 논리, 자신의 과업을 투사하여 아들에게도 연애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자기애의 연장선상에서 조직된 모성애는 어느새 민족애와 동지애의 형태로 변화한다. 즉 한 개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대중을 향한 사랑, 보다 넓은 이타적 사랑을 아들에게 요구하며 모성애의 과업은 계승된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연애를 금지할 때, 이는 남근적 모성의 형태로 볼 수 있다.³³⁾ 미혼모로서 자녀의 양육이라는 어머니의 역할과 생계의 책임이라는 아버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순모의 위치는 상징적인 법의 권위에 대한 사이비 대리자가 되는 동시에 자기희생적 모성의 연장선이라는 양가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이것을 불합하는 논리가 바로 '민족 모성'의 형태가 되는 바, 연애의 금기는 민족애의 확장이라는 형태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철진(아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어머니의 자세를 권력에 대한 추구라는 아버지의 욕망 대신에 학습함으로써 민족애의 전범을 이룰 수 있게 된다.³⁴⁾ 이로부터 엄격한 어머

32) 위의 책, pp.413~416.

33) 남근적 모성이란 희생적이고 상냥한 관습적 모성에 대비되는 사악하고 히스테리한 모성을 의미한다. 과잉 집착과 과잉보호를 통해 자식을 지배하려는 어머니의 강박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딸에게 과잉 집착하여 남성과 평범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모성애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A. Kaplan, *Motherhood and representation*(New York : Routledge, 1992) 참고.

34) 겸손과 배려는 흔히 '어머니 되기'(mothering)의 과정 속에서 구현되는 궁극적인 이상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라 루덕은 긍정적인 어머니의 사고방식의 특징으로 겸손과 배려와 같은 감정적 자질을 들면서 이는 여성-남성의 구도를 떠나 자녀라는 대상을 양육하는 모든 존재의 자질로 긍정되어야 할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

니, 남근적 모성의 모습은 히스테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형태로 그려질 수 있다.

안순모의 위대한 민족애적 모성이 가능해지는 데에는 외할머니의 양육과 배려가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 순모의 어머니와 하숙집 노파가 철진을 양육하는 사이 순모는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여성 공동체의 자매애에 입각한 자녀 양육이라는 형태가 실현된다.³⁵⁾ 이는 <딸삼형제>에서는 정매-정국 두 자매가 그 아들 도운을 중심으로 실현하는 '자매 악기점'의 모습으로 현현한다.

겨울이 지났다. 정국은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고등여학교 피아노 선생으로 나왔다. 민과는 절교하고 말았다. (중략) 안국동 집은 팔어 삼분파를 해가지고, 정란은 남편의 개업비로 쓰고, 정매와 정국은 한데 뭉아 종로에 작으만한 이층집 하나를 얻고 악기점을 내었다. 상점 이름은 자매악기점, 이 자매악기점에서 제일 먼저 틀어 놓았고, 또 제일 많이 틀어 놓는 레코-드는 정국이 가 동경서 도운에게 보낸 세 자장가 판이었다. 정국은 안에서 판을 싣고, 정매는 도운을 안고 길에 나와 확성기에서 울리는 자장가에 눈물이 글성해지곤 하였다.³⁶⁾

정매의 남편 필조가 떠나가고 정국이 연인 민과 절교한 상태에서 그들은 도운이라는 공통의 아들을 키우며 악기점을 꾸려가는 것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 필조와의 이혼단계에서부터 언니 편에서 적극적 보조자의 역할을 한 정국은 새로운 가정의 한 축을 구성하며 자매애적 연대를 보여

다. 이에 대해서는 사라 루디, 『어머니의 사고방식』, 베리 쏘온 편, 앞의 책 참고.
35) 아드리엔느 리치는 여성의 진정한 가족 로맨스는 부권적 질서를 강요하는 강압적 이성애성에서 벗어나 가족 바깥의 새로운 관계 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자매애적인 유대나 공감은 강압적 이성애성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맺기를 가능케 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아드리엔느 리치,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역(평민사, 1995) 참고.)

36) 이태준, 『딸 삼형제』, pp.354~355.

준다. 자매애적 연대가 강압적 이성애에 입각한 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맺기와 가정을 가능케 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볼 때, 그 대안가정에서 성장한 아들의 이야기는 기존의 남성서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자장가가 흘러나오는 악기점의 여인과 어린 아들은 그 자체로 이상적인 대체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속에서 두 여성은 영원히 처녀로 존재하며 그들의 육체를 훼손하는 것은 더 이상 세월도, 남성도 되지 못한다. 그들은 도윤의 양육을 통해 생산적 가치, 인생의 경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공의 환상적인 자매애의 세계, 모성의 세계란 사실 <사상의 월야>의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어머니-외할머니 가정의 안락함에 대한 이태준의 꿈이 형상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941년에 씌어진 <사상의 월야>는 흔히 고아로서의 이태준의 의식지향을 읽어내는 주된 텍스트로 여러 논자들에 의해 그 아버지의 지향성을 발견하는 대상이 되어왔다.³⁷⁾ 그런데 <사상의 월야>에서 아버지의 흔적은 사실 후반부 일본으로 건너가는 송빈의 의식에 의해 간단하게 지시되어 있을 뿐, 아버지의 길을 추적하는 서사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전반부 해삼위에서 귀국하여 배기미에 정착한 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유년기를 보내는 그 시기가 고아인 송빈의 이후 의식을 장악하는 원형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송빈이는 서당에 가기가 싫었다. 첫째, 할머니 곁을 떨어지기가 싫어서였다. 집에는 밤낮 떡국 만둣국이 절절 끓는다. 할머니를 보고 「호응」 한마디 하면 「떡국?」 「아니, 「그럼 만두?」 「누가 그까짓 거……, 「그럼 달걀 삶아 줄까?」 그래도 「호응」 소리만 하면 할머니는 으레 주머니끈을 끄르셨다. 그러면 송빈이는 그 청진서 들어온 오색물감 칠한 또아리처럼 납작납작한 사탕을 사러 뛰

37) 대표적으로 이병렬, 「이태준의 아버지 찾기」, 『이태준 소설 연구』(평민사, 1998) / 허병식, 「이태준과 교양의 형성」,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깊은샘, 2004)를 들 수 있다.

어가곤 하였다.³⁸⁾

원산 근처 소청거리에서 보낸 유년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완전한 사랑 속에 부러울 것 없는 도련님으로서의 삶으로 <사상의 월야>에서 유일하게 풍족한 장면으로 그려진다. 이태준에게 모성이란 어머니-외할머니의 절대적인 이해와 사랑, 현명한 양육으로 이루어진 풍족한 세계로 환기된다. 어머니-외할머니는 이태준의 의식 속에서 똑같은 어머니의 형상, 위대한 모성의 형상으로 자리하며 아버지는 이미 죽어 항상 부재하는 가운데 단지 유골로만 기억될 따름이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라는 절대적 애정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그의 서사의 원형으로 자리하고 있기에 이태준이 구성하는 가정은 항시 아버지 또는 남편이 축출된 상태에서 두 여성의 현신이 아들에게 집중되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첩이었으며 그는 서자인 비 법률적 존재이기에 그에게 정상적인 가정이란 억압적인 어떤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원산 혹은 배기미에서만 그는 정상적인 가정의 자식이 될 수 있으며, 아버지의 공간인 철원에서 그가 겪게 되는 고난은 서자의 고통이며 고아의 고통이 된다. 첩이라는 섹슈얼리티의 대상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이태준은 자신의 어머니를 무엇보다 현명함과 풍족함의 모습, 공적 가장의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죽어 그 아버지의 흔적만을 간직하고 있는 이태준에게 가정은 정상적인 핵가족의 모습을 가질 수 없으며, 어머니의 존재 역시 그 유년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상적인 가정은 풍족한 모성의 세계, 두 자매의 연대(혹은 어머니-외할머니)로 이루어진 자궁 선망이 되는 것이다. 자궁의 풍족함, 그 편안함을 상실한 채 성년을 맞이한 이태준에게 사상의 월야란 그 잃어버린 유년의 풍족함, 잃어버린 자궁의 흔적을 찾아헤매는 과정이 되는 것은 아닐까.

38) 이태준, 『사상의 월야』, 이태준 전집 6(깊은샘, 1988), p.27.

5. 결론

이태준 장편 소설을 통해 아들의 어머니 서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이태준은 일반적인 남성으로서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환상, 즉 완벽한 어머니의 환상을 공유하는 동시에 그 어머니가 가졌던 현실적인 조건, 첩이라는 위치와 아버지의 죽음을 독특하게 전유하는 형태로 서사를 구현하고 있다. 그것은 먼저 남편 또는 아버지가 축출되어 이루어지는 미혼모-사생아의 공적 가정의 모습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미혼모-사생아의 가정은 그 어머니의 여자 형제 또는 외할머니와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매애적 질서 속에서 유년의 풍족함의 형태를 띤다. 남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 가정 속 여성의 모습은 섹슈얼리티를 갖지 않는데, 문제는 그 아들에 의해 씌어지는 어머니 서사에서 그것은 어머니의 성적 자질 자체를 근원적으로 거세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성모>와 <딸 삼형제> 등 어머니 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들 속에서 여주인공들은 모두 성에 대한 무지 혹은 이성애에 대한 강한 거부로 특징지어진다. 이처럼 어머니에게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거세하고 헌신적이고 완벽한 모성의 모습을 그려가는 가운데 이태준은 일반적인 남성 서사, 즉 여성의 성적 자질을 규제하고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 여성의 신체를 가두어 놓는 전략에 포섭된다. 이것이 이태준이 가지고 있는 여성 의식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태준, 『성모』, 이태준 전집 7(깊은샘, 1988), pp13~430.

- 이태준, 『사상의 월야』, 이태준 전집 6(깊은샘, 1988), pp.13~38.
이태준, 『청춘무성』, 이태준 문학전집 6(서음출판사, 1988), pp.262~391.
이태준, 『딸 삼형제』, 이태준 문학전집 12(서음출판사, 1988), pp.15~355.
『조선중앙일보』

2. 단행본

-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소명출판, 1999), pp.11~224.
송인화, 『이태준 문학의 근대성』(국학자료원, 2003), pp.13~264.
안남연, 『이태준 장편소설연구』(도서출판 대영현대문화사, 1993), pp.13~284.
이경훈, 『오빠의 탄생』(분학과지성사, 2003), pp.13~52.
이명희, 『상허 이태준 문학 세계』(국학자료원, 1994), pp.89~124.
이병렬, 『이태준 소설 연구』(평민사, 1998), pp.59~280.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p.47~60.
장영우, 『이태준 소설 연구』(태학사, 1996), pp.201~258.
정한숙, 『한국현대문학사』(고려대출판부, 1982), pp.23~25.
조은 외, 『근대 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서울대출판부, 1996), pp.12~115.
아드리안느 리치,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역(평민사, 1995), pp.23~59.
새리 엘 서러, 『어머니의 신화』, 박미경 역(까치, 1995), pp.7~335.
A. Kaplan, *Motherhood and representation*, New York : Routledge, 1992.

3. 논문

-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소명출판, 2002), pp.223~246.
김은정,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욕망의 서사적 구성화를 중심으로」(서강대 박사, 2001).
김주리,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체담론 연구」(서울대 박사, 2005).
노지승, 「한국 근대 소설의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 2005).
박진숙, 「이태준 문학연구- 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 2003).
서영채, 「두개의 근대성과 처사의식」, 상허학회 편, 『이태준 문학연구』(깊은샘, 1993), pp.54~86.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양상 연구」(서울대 박사, 2003).

- 이정옥, 「'성모', 끝없이 이어지는 신화의 재생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학과 모성성』(태학사, 1998), pp.89~115.
- 이호숙, 「식민지시대 남성작가의 욕망과 여성주인공」,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깊은샘, 2004), pp.195~226.
- 채호석, 「이태준 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미」, 상허학회 편, 『이태준 문학연구』(깊은샘, 1993), pp.291~319.
- 채호석, 「통속과 계몽 그리고 (제국)의 논리」,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깊은샘, 2004), pp.91~114.
- 허병식, 「이태준과 교양의 형성」,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깊은샘, 2004), pp.227~250.
- 낸시 초도로우, 「완벽한 어머니의 환상」, 베리 쏘온 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한울아카데미, 1991), pp.74~103.
- 사라 루덕, 「어머니의 사고방식」, 베리 쏘온 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한울아카데미, 1991), pp.104~128.
- 가야트리 스피박, 「페미니즘과 비평이론」, 『다른 세상에서』, 태해숙 역(도서출판 여이연, 2003), pp.164~195.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maternity in Yi, Tae-jun's long novel

Kim, Jue-Lee

This study aims to make clear of the meanings, values and limits in Yi Tae-jun's maternal narratives such as <The Holy Mother>, <Three sisters> and so on. While the studies on Yi Tae-jun frequently commented on his creative motivation in relation to his pursuit on ideal father,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that his creative motivation related to his pursuit on ideal mother too. As an orphan, he pursued to an ideal mother different from the maternity in general modern home, at the same time he owned the fantasy of the ideal mother jointly that general man has in patriarchal system. We could criticise that Yi, Tae-jun exhaustively castrated sexuality in maternal body through the paradox of pregnant virginity in his maternal narratives. The paradox of mother, pregnant virginity was connected to a public home which consisted of a not-married-mother and an illegitimate child. This home was evoked the abundance of childhood to him(a son and writer), in order of sisterly love which was formed through the solidarity between a mother and her sisters or her mother different from the general order of a two generation family. (In this point we could regard Yi, Tae-jun's novel as a narrative of an uterine ambition.) When we focus to Yi, Tae-jun's pursuit to ideal mother in relation to his memory of childhood which was abundant with his mother and his maternal grand-mother, we could estimate that his maternal narrative has positive meanings differently from other male writer's in colonial time.

key words : maternal narrative, the paradox of pregnant virginity, the public home of a not-married-mother and an illegitimate child, the solidarity with sisterly love, an uterine ambition.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